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목 차 >

I. 회의 개요	1
II. 핵심 회의결과	1
III. 의제별 회의결과	3
IV. 평가	9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결과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20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회의
 - 제17차 OECD TDPC 지표개발작업반 회의
 - 제10차 OECD TDPC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월 1·2·3·4일, OECD 본부(프랑스 파리)
- 참석자 : OECD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 대표 50여명

II. 핵심 회의결과

1. 2009년도 장관급 회의 관련

- 의장은 2009년 3월 30~31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예정인 장관급 회의에 각 회원국의 관계 장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며 회의 준비일정을 소개
 - 2003년 장관급 회의 이후 2번째로 개최되는 TDPC 장관급 회의로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
 - 핀란드 공공관리지역행정장관을 의장으로, 각국 지역정책 담당 장관 이외에 지방정부, NGO 등 지역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
 - 2009년 3월 30일(포럼) 및 31일(장관회의) 개최될 예정이며, 31일 장관회의는 4개 세션으로 구성(최근의 지역정책동향 리뷰, 금융위기 이후 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의 기여방안, 지역의 혁신 촉진, 다층적 거버넌스를 위한 문제점의 해결)
- 모든 회원국들은 준비를 위한 사무국의 노력에 만족감과 감사를 표시하였으나, 스위스, 벨기에 등 다수 회원국들은 한정된 시간에 비해 의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

- 금융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책 원칙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는 금융 및 경제위기 대응방안과 관련, 균형과 효율성이라는 지역정책의 두 패러다임간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 또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토 및 지역재생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
- 회원국들의 의견에 대해 의장 및 사무국은 웹기반의 의견 공유 등 회원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조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2. TDPC mandate 갱신 및 심층평가 관련

- OECD 공공개발국 국장은 2009년 말까지 TDPC Mandate의 갱신작업이 이루어 질 것임을 보고
- 2009~2010년간 OECD 사무국의 TDPC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하고, 회원국들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2010년도 2/4분기 초안이 도출될 예정임을 보고

3. OECD 도시정책 리뷰 관련

- TDPC 및 산하작업반 작업 진행현황 보고와 관련, 도시작업반 의장은 향후 국가 도시정책 리뷰를 착수할 예정이며, 최초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의 도시정책 리뷰를 시작할 예정임을 보고
- 우리나라는 현재 이를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중임을 언급하고, 향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시 사무국과 실무적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도시정책 리뷰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발언

4. 지역혁신, 지역정책, 도시정책 리뷰 관련

- 멕시코, 이탈리아에 대한 지역혁신 리뷰와 칠레에 대한 지역정책 리뷰, 덴마크 코펜하겐에 대한 대도시 정책 리뷰가 진행됨

- 칠레의 경우, 중앙집중적 국가로 단기간에 강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적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의 많은 연관성을 드러내며,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 등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수사례로 제시
- 우리나라는 칠레의 지역정책 리뷰의 완성도 및 OECD 회원국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 또한 제시된 사례와 같이 중앙집중적인 방식에서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언

5. OECD eXplorer 관련 : 지역정보 탐색을 위한 상호작용 지도

- OECD 사무국에서는 경제, 노동, 건강, 교육, 거버넌스 등 지역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OECD eXplorer 업그레이드 버전을 소개
- 정책담당자, 전문가, 일반인 등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상호작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 3월 제작 완료 및 상용화 예정

III. 의제별 회의결과

1. OECD 제20차 TDPC 개회

- OECD 부사무국장은 20차 TDPC에서 다룰 의제 및 방향에 대하여 언급
- 특히 2009년 3월 TDPC 장관회의에서는 다층적 거버넌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
- 또한, 금융 및 경제위기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담당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TDPC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

2. 의제 및 Bureau 멤버 교체 승인

- 20차 TDPC 의제 승인 및 사의를 표명한 Mrs. Sylvie Esparre(프랑스)에

이어 Bureau 멤버로 추천된 Mrs. Odile Bovar에 대해 스위스, 헝가리, 캐나다의 지지발언을 통한 승인

3. TDPC 관련 OECD 주요 사항 보고

- 공공개발국(GOV) 국장은 지역개발정책위원회와 관련, OECD 차원의 진행사항을 보고
- 2009년 말까지 TDPC Mandate의 갱신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
- 2009~2010년간 OECD 사무국의 TDPC 심층평가 진행계획을 보고
 - 심층평가는 회원국들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2010년도 2/4분기 초안이 도출될 예정
 - 미국은 Mandate 갱신작업 및 심층평가가 시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 두 작업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으며, 사무국은 Mandate 갱신작업을 2009년 말보다 일찍 완결하여 이를 심층평가에 반영하거나, 평가결과를 다음번 Mandate 갱신때 반영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

4. TDPC 의장 및 산하작업반 의장들의 보고

- TDPC 의장 및 산하작업반(농촌정책, 도시정책, 지표개발) 의장들이 지난 회의 이후 진행상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보고

<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

- TDPC 의장은 19차 회의 이후 진행사항 및 20차 TDPC의 주요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보고
- 특히 최근의 경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들은 대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임을 언급
 - 이는 TDPC에 있어 이들 정부에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유용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커다란 기회임을 강조
- 2009년 3월 장관급 회의는 이러한 TDPC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는 기

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주요한 방향을 언급

- 공적자금을 통한 공공투자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및 투자방법 결정 필요
- 지역역량 강화가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공공투자 시스템을 기존의 일률적이며 하향식 방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지역발전과 금융시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여 최근의 금융시장 규제 재정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필요
- 2009년 3월 장관급 회의는 지역발전이 국가 전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임으로 그 동안의 TDPC 작업을 바탕으로 이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 농촌정책작업반 >

- 농촌정책작업반 의장은 16차 회의 이후 진행사항 및 12.2일 개최된 17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
- 중국, 스페인, 이태리 농촌정책리뷰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농촌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작업을 착수하였음을 보고
- 장관급 회의가 그 동안의 성과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혁신과 거버넌스, 농촌서비스 접근성의 균형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도시정책작업반 >

- 도시정책작업반 의장은 2009년 6월 완료예정인 코펜하겐 및 토론토 지역리뷰와 현재 진행중인 베니스, 광둥 지역리뷰, 한·일 정부 공동지원으로 진행중인 환황해권 도시간 협력방안 연구에 대해 언급
- 2008년 10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언급하고, 내년도 6월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차기

워크샵이 개최 예정임을 보고

- 향후에는 각국 정부의 도시정책 리뷰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며, 최초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한 한국의 도시정책 리뷰를 착수할 계획임을 언급
 -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정부예산이 현재 국회 심의중임을 소개하고, 동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한국의 도시정책 리뷰의 착수를 희망한다고 발언

< 지표개발작업반 >

- 지표개발작업반 의장은 장관급 회의를 위한 배경 보고서에 포함된 OECD 지역내 경제성장 원천 보고서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추후 상세 보고서가 출판 예정임을 소개
- *OECD Regions at a glance 2009* 최종보고서 도출과 함께, 지역간 이주의 원인 및 유형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보고

5. 2009 TDPC 장관급 회의에 관한 토의

- 2009년 3월 30~31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예정인 장관급 회의에 각 회원국의 관계 장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며 회의 준비일정을 보고
 - 12월 10일 장관회의 준비 진행상황에 대해 OECD 심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2009년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워크샵에 이어 2월 확대 Bureau 회의를 통해 장관회의 의제를 결정 예정
 - 장관회의 의제는 그 동안의 TDPC 논의 성과와 현재의 상황들을 분석한 배경 보고서와 이를 기반으로 각 국 장관들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보고서로 구성될 예정
 - 2월 확대 Bureau 회의는 Bureau 멤버 뿐만 아니라 회원국 모두가 참여 가능함을 언급하고, Bureau 회의 이전 각국의 의견을 질문서 등을 통해 수렴 예정
- 장관회의 준비계획 및 배경보고서, 정책보고서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의견 제시 및 토의

- 모든 회원국들은 장관회의 배경보고서, 정책보고서의 완결성과 이를 위한 사무국의 노력에 만족감과 감사를 표시
- 다만 스위스, 벨기에 등 다수 회원국들은 한정된 시간에 비해 의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고, 이태리 등에서는 배경보고서가 정책보고서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되어야 함을 지적
- 금융 및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함을 언급
- EU, 노르웨이 등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하향식, 단기적 접근으로 회귀시킬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정책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
- 지역정책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관련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민간부문(business sector)의 역할이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
- 혁신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각 국가의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방식이 제시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적 메시지도 도출해야 함을 강조
- 우리나라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토 및 지역재생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
- 회원국들의 의견에 대해 의장 및 사무국은 웹기반의 의견 공유 등 회원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조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6. OECD eXplorer : 지역정보 탐색을 위한 상호작용 지도

- OECD 사무국에서는 경제, 노동, 건강, 교육, 거버넌스 등 지역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인 OECD eXplorer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소개

7. 지역혁신정책 : 지역혁신정책의 측정 및 혁신의 거버넌스

- 지역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역혁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지역혁신성과의 측정 및 혁신의 거버

년스에 대한 초안 보고서에 대한 발표

- 사무국은 지역혁신성과의 측정 초안 보고서와 관련, R&D 투자비율, 첨단 기술산업의 고용율, 공공/민간의 R&D 투자비중 등 지표의 측정을 통해 혁신활동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 지표들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는 결과를 보고
- 혁신과 거버넌스와 관련, MERIT의 Claire Nauwelaers는 지역차원의 혁신관리를 위한 사례로서 지역혁신기관의 정의, 특징, 발전모델 등을 소개

8. OECD 지역혁신 리뷰 : 멕시코, 이태리

- 2008년 착수한 영국(북잉글랜드), 멕시코(15개 주), 이태리(피에몬테)에 대한 지역혁신 리뷰와 관련, 멕시코와 이태리에 대한 리뷰 결과를 소개
- 멕시코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율, GDP 증가율 등에서 매우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간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한국의 경우 멕시코와 달리 노동생산성 등의 성장률이 매우 높은 사례로 제시)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 시스템과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각 지역에 적합한 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안
- 이탈리아의 경우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 지역혁신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중
 - 피에몬테는 R&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로 높은 첨단기술산업 종사자 중 혁신활동이 활발한 지역
 - 피에몬테의 혁신정책은 장기적인 경기성장률 둔화 등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9. TDPC 읍저버 승인

- 칠레에 대한 정규 읍저버 자격 갱신 및 남아공에 대한 신규 읍저버 자격 부여 승인(2년 기간)

10. 칠레 국가지역 리뷰

- 강력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중앙집중적 국가이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지방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화를 추진중임
-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중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지역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장애로 나타남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정책추진의 효과적 조정 등 지속적인 지역균형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11. 대도시 경쟁력과 거버넌스 : 코펜하겐 사례

- 코펜하겐 시장은 코펜하겐에 대한 대도시 리뷰를 통해, 우수한 성장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코펜하겐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리뷰를 진행함
- 분권화된 국가 체제 하에서 코펜하겐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노동인력의 잠재력 극대화, 우수한 외국 인력의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혁신, 기업가 정신, 주택보급, 도시환경 정비 등의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한 코펜하겐 시의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제시

IV. 평가

- 장관급 회의의 준비사항 및 의제에 대한 각국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회의의 일정 및 세션 구성, 아젠다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향후, 장관급 회의 준비를 위한 각국의 의견수렴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장관급 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관급 회의시 97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각 회원국과 공유한다면,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함과 동시에, OECD 내에서의 위상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진행될 TDPC Mandate 갱신과 TDPC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TDPC가 본래의 목적인 OECD 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제시 필요
 - 현재 TDPC는 혁신, 다층적 거버넌스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금융,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제안을 도출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보임
 - 정책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금융, 경제위기에 대응한 효과적인 공공투자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
- 도시정책작업반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착수 예정인 한국의 도시정책리뷰는 TDPC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핵심 작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OECD내 위상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 향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도시정책 담당부서와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OECD와 우리나라정부 모두에게 유용한 리뷰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멕시코의 지역혁신리뷰, 칠레의 도시정책 리뷰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성장률을 나타내는 사례로 제시되는 등 한국의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우수한 평가가 나타남
 - 향후, 각 국의 지역 및 도시정책리뷰에 대한 활발한 자료제공 및 우리나라의 리뷰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OECD 회원국에 유용한 정책적 사례를 제공
- TDPC 등 OECD 위원회는 회원국의 의견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사결정은 몇몇 회원국으로 구성된 Bureau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Bureau 멤버로 참여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참여가 전무한 상태 (제20차 TDPC Bureau 멤버는 미국(의장

- 외 1인),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일본, 멕시코로 구성)
- OECD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감안, TDPC Bureau 멤버로 우리나라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
 - 이를 위해 관련 공무원 외에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여 TDPC에 대한 참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Bureau 멤버로 선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